주장자따라…

⑰ 추담 스님의 '인생법문'

조태호

추담 스님(1898~1978): 함흥 生. 3 · 1 독립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름. 해동불교 청년회 조직. 건봉사 대교과 이수. 교육과 독립운동 전개. 금산사 · 법주사 주지 등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란

문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ID '여몽')

답1: '여몽환포영'은 〈금강경〉의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에서 나온 말로서 일체의 유위법이 마치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뜻이다. 꿈에서 깨면 생시요, 환(幻)에서 벗어나면 실(實) 그대로이며, 거품이 사그라지면 그 자체는 물이요, 그림자는 반드시 체를 따르는 것이니, 유위법 또한 무위법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ID '성조')

답2: 수행을 하다 보면 큰 거울 속에 세상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거울 하나만 깨면 곧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세상을 보면 이상하게도 모든 집착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 그런 후에야 진짜 '여몽환포영'의 뜻을 알게 된다. (ID '법설')

답3: 사람들은 각자가 영화 화면상의 한 장면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부처님께서 객석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거짓된 세계에서 꿈속에서, 환상속에서, 거품처럼, 그림자 처럼 살고 있으니 벗어날지라!" (ID '세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㊶

교외별전(敎外別傳)- 1

가르침 · 깨달음의 체험 이심전심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선불교의 구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떤 연유에서 언어를 불신하는지 이모저모 살펴보았다. 이쯤에서 그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 대목, 즉 교외별전(敎外別傳)으로 넘어가보자. 어차피 이 대목에서도 언어문자에 대한 선종의 태도가 계속 거론될 것이다.

언어문자를 넘어서는 종교적인 체험도 남에게 전달하려면 어차피 언어문자에 담아 표현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언어문자만이 유일한 표현 수단은 아니다. 몸짓이나 표정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심지어는 침묵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체험과 생각을 남에게 표현하는 일차적인 수단은 역시 말과 글이다. 논리와 조리를 갖추어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인간 특유의 아주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때로는 몸짓, 표정, 음악, 침묵이 말이나 글보다 훨씬 간단하고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음을 표현할 때, '나 화났어'라는 말보다는 화를 내는 몸짓과 표정이 훨씬 간단하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적어도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면 말이나 글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 성인들이 말과 글을 불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과 글을 동원하여 가르침을 편 것이다.

그런데, 종교체험을 전달하는 데에는 말과 글의 논리와 조리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지난주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습관에 젖어있다. 여기서 손가락은 말과 글을 비유한다. 우리는 말과 글에 매달려서 그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느라 분주하다. 심지어는 말과 글 그 자체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떠받드느라 바쁘다. 그러다보니 정작 성인이 그 말과 글로써 억지로 표현한 종교체험의 경지는 관심 밖으로 밀어놓기 일쑤이다.

이 연재의 앞부분에서 일찌감치 언급한 적이 있듯이, 불교의 역사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선종은 이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경전을 해석하고 여러 경전의 취지를 비교하며 그 위치를 가늠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선종은 모두 한 마디로 교종(敎宗)이라고 싸잡아 불렀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즉 깨달음의 체험은 경전의 글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글귀로 표현된 가르침, 즉 교(敎) 이외에 별도로 전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교외별전, 즉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구호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는가? 교외별전이라는 개념과 흔히 함께 붙어 나오는 것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는 익숙한 말이다. 직역하자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는 뜻이겠고, 대개는 굳이 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표현하지 않아도 속마음이 전달되어 서로 알아준다는 뜻으로 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다. 흔한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엄청난 양의 의사소통이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깨달음의 체험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리송하다. 어찌하여 그게 가능할까?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7〉

최적정 바라문의 법문

'바람의 말' 삼세 여래 법신의 바탕 진실한 의지 세워 가치 스스로 실현

선재동자는 무승군장자로부터 성(城) 남쪽의 법(法)이라고 하는 촌락에 있는 '가장 고요함(最寂靜)' 바라문을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촌락에 이르러 최적정바라문에게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진실하게 원하는 말(誠願語)'이다. 과거 · 현재 · 미래 보살들이 이 말을 인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나니, 이미 물러간 이도 없고, 지금 물러가는 이도 없고, 장차 물러갈 이도 없다. 선남자여, 나는 진실하게 원하는 말에 머물렀으므로 뜻대로 짓는 일이 만족하지 않는 일이 없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의 해탈을 알 뿐이다. 저 보살마하살들의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 행함과 더불어 어긋나지 않으며, 말은 반드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아서 한량없는 공덕이 이로부터 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말하겠는가."

바라문이 설하고 있는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하는 말(願語)의 위대한 힘에 관한 것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원의 말(願語)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바라문의 언어는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진실해서 허망함이 없고 이로 말미암아 해탈을 이루게 된다.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 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경문에서도 '과거 · 현재 · 미래의 보살들이 이 말을 인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은 초발심할 때로부터 커다란 서원(誓願)의 말을 세우고 뒤에 반드시 그 말과 같이 행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진실하게 원하는 말'은 이와 같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발심에서 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간 출세간 법의 일체를 지음에 성취되지 않음이 없고, 원해서 구하는 것을 모두 만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은 시방세계에서 거룩한 활동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삼세 여래의 법신의 바탕(體)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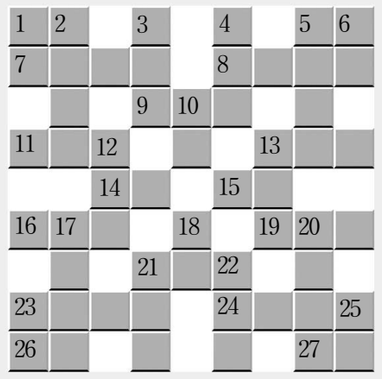
이 바라문이 살고 있는 촌락의 이름이 법(法)인 것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을 비롯한 그의 삶 모두가 진실한 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가장 고요함(最寂靜)'인 것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라고 하는 해탈을 얻고 있는 이 바라문의 마음의 경지가 혼란스러움이나 잡음이 사라진 한없는 진실함과 고요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그가 언제나 진실함과 고요함에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은 한없는 고요함에 뿌리를 두고 자연히 행하여지고 있는 진실의 경지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세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원하는 말'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의 경계는 항상 진실하고 고요함을 떠나 있지 않는 것이다.

이 바라문이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살마하살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대로 행하고, 또 그 허망하지 않고 진실한 말은 한량없는 공덕을 낳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바람의 말(願語)'의 기능과 효용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러가지 바람의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 바람의 말들은 대부분이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바라문이 설하고 있는 바람의 말은 이와 달리 진실한 의지를 일으켜 어떠한 가치를 스스로 실현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의 말은 그대로 인간 생존의 모습을 스스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하고 한없는 공덕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람의 말이 '기도문'이 아니라 '발원문'으로 되어서 고요하고 밝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의지를 끊임없이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우리들은 도처에서 발원문을 만나고 또 그것을 낭독한다. 늘 발원문을 읽고 발원을 하지만, 그 발원은 스스로의 진실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굳은 의지의 표출이 아니다. 다만 발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낭독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발원에 자신의 진실한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퇴전하게 되고 어떠한 공덕도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발원이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것이라면 뜻하여 짓는 일을 만족시키기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적정바라문의 법문을 통해서 '진실하게 원하는 말'의 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이 윤택해진다는 봄의 마지막 절기 5. 금을 두드려 종이처럼 얇게 늘인 물건 7. 조국애의 유사말 8. 눈앞에 닥친 문제나 임무 9. 친구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 11. 고서(古書)를 후세 사람이 교정해서 펴낸 책 13. 마음자리의 본래 그대로의 체를 반조해 본다는 뜻 14.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사람 15.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무장으로 유비, 관우와 의형제 16.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도 함 19.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는 공식적인 말 21.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 23. 책을 쓰는 일을 하는 행위 24. 이미 지나간 일 26.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옴 27. 책임과 의무.

세로 1. 음악이나 가사의 가락 2. 나라의 현 상태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3. 몸집이 작은 종자의 말 4. 무의 한 가지로 꽃과 겉껍질이 붉음 5. 규칙이나 교훈 6. 동물을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일 10. 구리로 만든 사람의 형상 13. 피고나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 17. 마을 부녀자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려 돌며 추는 민속춤 18. 특정 경전을 토대로 하여 교리를 체계화 시킨 종파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 20.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책 21. 양개(良价)가 동산(洞山)에서 도를 넓혀 창종한 종파로 제2조 조산(曹山)과 제1조 동산의 이름으로써 종명을 삼았다 22.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지혜제일 23. 떨어져 낮아짐 25. 회사의 업무.